

“소방대원들 급수작업 안전하고 쉽게”

전남119에디스 동호회, 물탱크 급수 장비 개발해 전남 소방서에 보급
 현직 소방관 13명으로 구성...현장서 사용하는 장비 개발
 특허 3개...“안전하게 구조 활동할수 있도록 연구할 것”

“늘 위험한 재난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소방본부 전남119에디스 동호회 회원들이 최근 ‘물탱크 급수 관창(管槍)’을 개발해 전남 소방서 곳곳에 보급했다.
 물탱크 급수 관창은 소방관들이 물탱크 급수 작업을 할 때, 호스를 물탱크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안전한 장비다. 물탱크 급수 작업은 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방역 활동 중 이뤄진다.
 구조도 원리도 간단한 장비지만,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박석호 전남119에디스 동호회장(화순소방서 소방위)은 “지금까지 급수 작업을 할 때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타고 3m 높이의 물탱크 위에 올라가 호스를 붙잡고 있어야 했다. 65mm 호스에서 물이 고압으로 뿜

어져 나오는데,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위험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관창을 고정하면 호스를 손으로 잡지 않고 있어도 돼 더 높은 수압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급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119에디스 동호회는 전남 지역 현직 소방관 13명으로 구성된 동호회다. 회원들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방장비들을 소방관들이 직접 개발해 보자는 뜻에서 지난 2016년 동호회를 창설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장비를 개발해 3개의 특허를 냈다. 좁은 공간도 통과할 수 있어 산불 진화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소방차’, 소방 호스를 빠르게 세척하고 건조까지 할 수 있는 ‘소방호스 처리 장치’, 최



근 개발한 ‘물탱크 급수 관창’ 등이다.
 동호회는 회비를 털어 이번 발명품을 전남 도내 16개 소방서에 지급했다.
 박 회장은 “아직은 전남 소방서에만 지급됐지만, 장차 전국 시군으로 보급돼서 소방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소방활동 하면서 불편한 장비들을 개선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홍유길 풍산파워텍 대표이사,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홍유길 풍산파워텍 대표이사가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5년 동안 1억 원을 기탁하기로 약정하고 116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그린수산 백선 대표, 대촌중앙초에 체온감지장비 기부



그린수산(주) 백선 대표가 광주 대촌중앙초등학교에 비접촉식 체온감지 열화상기 1대를 기부했다. 백선 대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 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화상기를 기부했다”며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촌중앙초 제공>

‘천재 싱어송라이터’ 장덕을 추억하다

30주기 맞아 남이섬에 노래비 건립
 ‘천재 소녀’라 불린 싱어송라이터 고(故) 장덕의 30주기를 맞아 남이섬에 노래비가 세워졌다.
 14일 남이섬교육문화그룹에 따르면 지난 1990년 2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장덕을 추모하는 노래비가 남이섬 노래박물관 앞에 최근 건립됐다.
 장덕은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님 떠난 후’ 등의 히트곡을 남긴 싱어송라이터다. 고등학교생이던 1977년 ‘소녀와 가로등’의 작곡가로 가수 진미령과 함께 ‘서울가요제’ 무대에 올라 이름을 알렸다.
 작곡과 노래, 연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약했으며, 오빠 장현과 함께 결성한 듀엣 ‘현이와덕이’는 한국판 카펜터스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90년 남매가 잇달아 요절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장덕이 작곡한 이은하의 대표곡 ‘미소를 띄우며 나

를 보낸 그 모습처럼’을 조성모, 브라운아이드걸스가 리메이크했고 현이와덕이 2집에 수록된 ‘뒤늦은 후회’는 2018년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에서 최진희가 불러 화제가 됐다.
 노래비가 남이섬에 건립된 데도 특별한 배경이 있다. 유족에 따르면 장덕이 1990년 출연한 KBS 신년특집 드라마 ‘구리반지’가 남이섬에서 촬영됐고 얼마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남이섬교육문화그룹 측은 전했다.
 당시 암투병 중이었던 오빠 장현은 동생이 마지막으



로 머물렀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남이섬의 인근 강물에 화장한 유해를 흘려보냈다고 한다.
 유족 장원 씨는 “고모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인 남이섬에 노래비를 세우는 것을 오랫동안 염원해왔다. 매우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대,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성과공유회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진월작은도서관은 최근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행사는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사업계획보고 발표와 직원 역량 강화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대 제공>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카이로스(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팔도보상	00 평만 빌리지(재)		00 우리가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재) 50 전교톱10(재)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딱맨(재) 50 뽀뽀보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특목 보형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만사 50 안녕 우리말(재)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45 내고향 전파 스페셜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슈 픽업과 함께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글로벌 코리아, 세계를 선도하다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핏 버티민(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덕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MBC 다큐프라임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남도에 가요 다시보기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45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평만 빌리지	20 카이로스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육담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00 토티하우스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미래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스페셜	15 뿔타는 청춘
12	10 코로나19 극복 집콕 특집영화 궁합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코로나19 극복 집콕 특집다큐 KBS 대기화 23.5(재)		35 나이트 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퓌터! 퓌터!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15 출동! 슈퍼왕스	12:25 베스트 히어로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보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식 e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7:45 꼬마히어로 슈퍼팩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00 당동영 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티시테시	14:4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2	<겨울왕국 어드벤처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5 몬카트	-북극해로 가는 길, 노르웨이>
09:00 뽀롱뽀롱 보로로	16:15 올리엔 문	21:30 한국기행
09: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16:30 당동영 유치원(재)	<나니랜드로 오세요 2부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내 꿈은 천하 무사 활비홍>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	17:20 마사와 곰	22:45 건축탐구 - 집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왕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5일(음 11월 1일 壬辰)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속사정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48년생 맞바탕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살펴볼 일이다. 60년생 차분한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 된다. 72년생 특별한 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을지라도, 84년생 바로 그것이 자신이 찾고 있던 바이다. 96년생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해당도 있음을 간파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7, 86</p>	<p>午</p> <p>42년생 한껏 멋 내고서 달밤에 홀로 걷는 격이다. 54년생 이 해독실만으로 존폐를 결정하는 모순이 따를 것이다. 66년생 상대의 속셈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8년생 변화 가능성이 열여 두도 초과할 필요는 없다. 90년생 난해했던 부분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열쇠를 갖게 된다. 02년생 원래, 극과 극은 상통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4, 53</p>
<p>丑</p> <p>37년생 연결 고리가 참으로 부실한 태양이다. 49년생 실수를 두려워하다가 가는 아무것도 못 하는 법이다. 61년생 면밀하고 변통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73년생 외관 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85년생 절실히 필요한 분야만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97년생 막힘없이 술술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 44, 90</p>	<p>未</p> <p>31년생 학습고대 하여 왔던 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43년생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55년생 당시의 현장에서 의사 표시가 분명해야만 한다. 67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79년생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91년생 준비되어 있다면 즉시 실행해도 좋은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40, 95</p>
<p>寅</p> <p>38년생 여기저기에 빈틈이 보이므로 관리를 잘 하자. 50년생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됨을 알고 있다. 62년생 순리에 따른다면 거릴 것 없으리라. 74년생 예전에 접해 보지 못했던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다. 86년생 쓸모가 없으니 체념은 빠를수록 유익하다. 98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행운의 숫자 : 22, 58</p>	<p>申</p> <p>32년생 양자 사이에서 중용의 입장을 취하라. 44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것이다. 56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68년생 규칙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 효과를 볼 수 있다. 80년생 제반사기 지연되고 결과도 늦추어질 수 있다. 92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행운의 숫자 : 46, 83</p>
<p>卯</p> <p>39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51년생 원칙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리라. 63년생 기대치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서 만족스러워하는 국량이다. 75년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크게 남패를 볼 수도 있다. 87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99년생 시적이 울바르며 성과가 앞차다. 행운의 숫자 : 37, 73</p>	<p>酉</p> <p>33년생 결코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니 차분하게 대처해야겠다. 45년생 방심한다면 호기가 악재로 변하리라. 57년생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하면 무난하리라. 69년생 상호간에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81년생 실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93년생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7, 51</p>
<p>辰</p> <p>40년생 방범까지 고려한다면 금강철화이다. 52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일취월장 한다. 64년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낼 수다. 76년생 지켜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88년생 불안전하지만 전혀 무리가 없었다. 00년생 일상에 충실하다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64</p>	<p>戌</p> <p>34년생 기준에 있어 왔던 것이니 다루기가 용이하겠다. 46년생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 분명히 다름을 알라. 58년생 중오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만 실수하지 않는다. 70년생 절충의 기회란 결코 흔하지 않는 법이다. 82년생 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94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방심하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09, 52</p>
<p>巳</p> <p>41년생 분수에 맞지 않으니 욕심 부려서는 아니 된다. 53년생 미세한 조짐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상태이다. 65년생 미리 준비 해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77년생 아주 적절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89년생 행하다 보면 결말이 나게 되어 있느니라. 01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바이다. 행운의 숫자 : 12, 81</p>	<p>亥</p> <p>35년생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흔들릴 수도 있다. 47년생 상이하다고 보여 질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합치하게 됨을 알라. 59년생 실제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71년생 즉시 조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83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95년생 사세의 가파를 쳐야할 시기이니라. 행운의 숫자 : 25, 56</p>